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영광 양성
민중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청교회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진근

학습 · 세례식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저녁 찬양예배를 통해서 학습 세례식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게 된다.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신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르는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공적인 믿음의 선언이다. 삼위일체와 대한 구체적인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시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행 2:38, 8:16, 10:48, 19:5). 그러나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여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므로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세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세례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 충청교회에서는 한 해에 6차례씩 학습 · 세례예식이 베풀어지고 있다. 언제나 되돌아볼 것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영혼과 삶에 주인이요, 왕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다. 바라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혼과 삶의 중심에 모셔들이는 분명한 내적인 선언이 먼저 시행되기를 기도하자.

제1회 충현 중창의 밤

11월 17일(금) 오후 7시, 본당에서

찬양위원회의 11월 17일 금요일집회 시간에 '제1회 충현 중창의 밤'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는 충현에 속한 모든 중창단을 대상으로 하는데, 의무적이기보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발표회를 갖기로 했다. 깊이 가는 가을의 밤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길 원하는 중창단은 아래 사항을 참고로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

- ① 신청 마감: 10월 29일(주일)까지
- ② 신청 장소: 찬양위원회(구내 259번)
- ③ 신청 곡목: 2곡 중에서 1곡 이상을 찬송가로 구성(2곡을 모두 찬송가로 불러도 됨)

벨엘 여성중창단 찬양감사예배

10월28일(토) 6시30분, 나사렛홀

이번 주 10월28일 토요일 저녁 6시30분에 나사렛홀에서 대하 · 청년으로 구성된 벨엘 여성중창단의 찬양감사예배가 드려지게 된다. 벨엘 찬양대와 함께 시작된 벨엘 여성중창단이 이번 찬양감사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원들이 되도록 충현의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한다. 벨엘 여성중창단의 지도에는 안설희 선생, 반주에는 한경숙 선생이 담당하고 있으며 모두 12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번 찬양감사예배에서 부를 곡목은 '나 속죄함을 얻은 후'와 '14곡이다'.

장로 선출 투표

다움주일(10월29일), 4부예배 후

제2차 공동의회서

장로 피택을 위한 2차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10월29일) 4부예배 후에 본당에서 장로선출을 위한 투표가 실시될 것이다.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길 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일인만큼 모든 충현의 성도들은 후보자 투표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눅6:12,13).

제33대 장로 후보자 명단



박 찬 섭
나이 48
교구 1
봉사 부서 지역장
차량관리부

번호:1



이 실 호
나이 50
교구 6
봉사 부서 지역장
초등부 부감

번호:2



조 종 환
나이 59
교구 12
봉사 부서 지역장
청년2부 교사

번호:3



배 준 식
나이 59
교구 13
봉사 부서 지역장
청년1부 부감
찬양위원회 위원

번호:4



김 영 달
나이 58
교구 2
봉사 부서 지역장
가르침현장대
충동1부 교사

번호:5

기도로
미리 준비하시고
투표에 소망시다

*번호는 안주십사 숫수 순서임

제직 앨범 사진촬영

11월5일부터 12월10일까지,

선교관 408호 홍보실에서

2001년도 제직앨범 제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촬영하고자 한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촬영에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 ① 촬영 대상: 45주년 제직 앨범에서 누락된 제직 / 2000년도 신규 임명 집사
- ② 촬영 기간: 11월5일(주일부터 12월10일(주일)까지 주말만 촬영
- ③ 촬영 시간: 주일 오전10시에서 오후4시30분 사이에 방문하여 촬영할 것
- ④ 촬영 장소: 선교관 408호 홍보실
- ⑤ 주의 사항: 촬영날짜를 지킬 것(날짜를 넘기면 더 이상 받지 않음) 98년도, 99년도 제직 앨범에 나와 있는 제직은 다시 찍지 않음. 사진을 가져오는 것은 받지 않음.

누가 5분위의 삶을 알겠는가

독일 칼럼

여 국 근 (목사, 12교구 지도)

알마친, 인후염으로 병원에 가서 항생제 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무척 당황스럽고 두려운 경험을 했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 당시 기분으로는 정말 죽는 줄로만 알았다.

먼저 항생제 주사가 대단히 위험한 약물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지시를 따라 항생제 주사를 맞고 나서 병원을 나서기 위해 일어났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점점 어지러워지고 숨이 가빠지면서 앞이 보였던 안보였던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그리다가 말겠지' 했다. 그런데 더 순간순간 더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주여' 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순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 갑작스런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당황스러웠다.

이 고통의 시간은 그리 길게 가지는 않았다. 나는 즉시 간호사를 불렀고 간호사의 응급조치로 안정을 취하게 하자 곧바로 정상적인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마24:42-43). 또한 칼반이 말한 '코람데오(Coram Deo)'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정말 주님께서는 언제 다 오실 줄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갑자기 주님 앞에 갈지 정말 모른다. '오라! 하변 가야 하는 초로인생들이다. 그 누가 5분위의 삶을 알겠는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갑작스런 죽음의 나닷없이 찾아온다!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충현의 성도들은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또한 언제나 우리 주님이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Decided Ungodliness

(Jeremiah 5:3)

“O Lord, do not Your eyes look for truth? You have smitten them, But they did not weaken; You have consumed them, But they refused to take correction. They have made their faces harder than rock; They have refused to repent.”

Paramount throughout the book of Jeremiah are the warnings against sin and judgment. The reasons for judgment are specifically given in chapter five. In particular, Jeremiah mentions, “O Lord, do not Your eyes look for truth? You have smitten them, But they did not weaken; You have consumed them, But they refused to take correction. They have made their faces harder than rock; They have refused to repent” (Jer. 5:3). Although Jeremiah is talking about the common people of Israel, this statement is about the story of all mankind and the primary evil of sin. As God calls His people to Himself, many turn away from His voice. The more you refuse to return to your allegiance in God, the greater the increase of sin in your life. The increase of sin hardens your heart; it makes it like a rock. Sin is intensified by your rejection of God’s pressing invitation to go the right way, His way!

Who refuses to return to God? Those who say as much! With unusual honesty, many people make public declarations that they will never quit their sinful ways. Those who make promises to repent but don’t perform them. Those who offer other things, like religiosity and morality, instead of actually practicing their return to God. People who pretend through appearance and formality — hypocrites who offer the counterfeit instead of the genuine. In other words, those who in a veiled manner really refuse to repent. Also, those who return to sin, hugging sins while hanging others. Usually this wretched method of continuous rebellion happens while the person feigns some kind of mission.

What do these kinds of refusals disclose? An intensified love of sin! Like the prodigal son who refused to leave the famine country he was living in for the want of love for his great father who bid his return, it also shows a disbelief in God. People who refuse

to return to God believe in the evil consequences of sin and not in what He promises. They despise God by rejecting His counsel and commands, even Himself. They resolve to continue in evil. This is their proud ultimatum. They have refused to return. They are too busy, too fond of

owed but declined. When repentance is known to be the happiest course but yet it is obstinately neglected against for the plainest reasons. When this obstinacy is continued and is preserved against convictions and, in a word, prompting. It is hard to explain when vile reasons are at the bottom of such

for his own best interest. They resolve to be a trifle. Death and hell and heaven are to them as a toy is to sport. They have a dislike of holiness. They can’t endure humility, self-denial and obedience to God. This really lies at the bottom of it. It is the preference of now instead of the presence of the eternal future.

My dear friends, don’t refuse God’s reasonable request to return. Don’t turn away from His tender invitation for you to return to Himself. It is not right, it is not wise. Life or death hangs on your choice. Why die? Let us sweetly consent and say, “I will do right and go on to my Father.” You will never regret obedience to such a suggestion. Unrestrained and disorderly living in the far country compared with the joy of living in your Father’s house, like the prodigal son story, is your choice.

From the cross, the Lord Jesus calls on you to return. He bids all who are weary and burdened to come home. He calls you to home. Please don’t reject God’s crying out to you. He sent His Son so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Life and death are in front of you. It’s your choice! Jesus invites you to come to Him. Truthfully, don’t we have a short life? Don’t blame mercy. Come home! You’re going to be an eternal person. If you don’t return, it’s not because you can’t but because you don’t want to come. Don’t give any reasons. God knows. He did everything He promised on His part. You cannot say on judgment day I tried but couldn’t do it. He’s given you a way to do it through Jesus Christ. Think of the story of the wedding guest who didn’t have on the right clothes and was thrown out for no other reason. Please return and repent for your benefit. Don’t you want to be holy? Don’t you think about eternal things? Fellow Choong Hyun members, what can be more important? God gives you everything. He loves you! All He wants is for you to return. Decide on God — not ungodliness.

If you don't return it's not because you can't but because you don't want to come.

Don't give any reasons.

God knows. He did everything He promised on His part. You cannot say on judgment day I tried but couldn't do it. He's given you a way to do it through Jesus Christ.

Think of the story of the wedding guest who didn't have on the right clothes and was thrown out for no other reasons. Please return and repent for your benefit.

Don't you want to be holy? Don't you think about eternal things? Fellow Choong Hyun members, what can be more important? God gives you everything. He loves you! All He wants is for you to return. Decide on God — not ungodliness.

gaiety. They think there is time enough yet. They find no need to be so earnest and have no doubts that things will come out right in the long run. They really treat God’s counsel lightly. Material things have more meaning to them than godly things. They never totally return, only partly return.

What deepens the sin of this kind of refusal? When correction brings no repentance. When the human conscious is violated and the Spirit of God is resisted. Repentance seems to be right but yet is refused. Duty is

behavior. Like secret sins which cause sinners not to confess, keep quiet about or fear man more than God. These types of actions make the mind cowardly.

What is the real reason why people refuse God? It may be ignorance, but is only be a part of it. For it is plainly a man’s duty to return to the Lord! No mystery surrounds the simple precept of “Return!”. It may be self — conceit. Perhaps some people imagine they’re on the right road. Mostly, it is sheer recklessness. People refuse to concede



김성관 목사

거부

(렘5:3)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죄와 인간의 관계

에레미야서를 일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죄와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심판의 이유가 5장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라고 언급합니다(5:3). 비록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지만, 이런 진술은 모든 부류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와 죄라는 근본적인 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그에게 돌아가기를 거절할수록, 그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은 자부 커질 뿐입니다. 죄가 쌓일수록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게 됩니다. 죄는 마음을 바위처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신 의의 길로 가라는 그의 간절한 초청을 거부함으로써 인해서 죄는 더욱더 강화되어집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할까요?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별단 정직함으로 자신들은 죄의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합니다. 그들은 회개할 것을 약속하지만, 그것들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로선 실천으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대신에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들과 같은 다른 것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본심을 감추고 채번과 관습으로 위장함으로써 의식하는 이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베일에 가려진 것과 같이 분명치 않은 태도를 취하는 이들은 진실한 회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정도만 적당하게 회개하거나, 다른 일을 행함으로써 죄를 숨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개를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비굴한 방법들은 그 사람이 어떤 일무로 가자하는 동안 벌여집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이유

이러한 종류의 거절은 무엇을 드러나게 합니까? 죄를 고쳐서하는 장치는 무엇에 드러납니다. 거기는 온 나라에서 떠나기를 거절하는 방방한 아버지처럼, 그는 귀한 것을 추구하여 위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결핍된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죄의 악한 영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의 충고와 명령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멸시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속할 것을 결심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들은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윤희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너무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래도록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권고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경건한

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함과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에 대해서 건지지 못합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것들이 그들의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미래의 도래를 소망하기보다 현실을 더 선호합니다.

회개를 거부할 때

이렇게 거부하는 죄는 무엇을 심각하게 만들까요? 잘못된 것을 수정하려 할 때 회개하지 않게 합니다. 인간의 양심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의 영이 거슬리게 됩

터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옳지 않으며,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사랑스러움으로 반응하시고, “내가 옳은 길로 갔겠사오며, 나의 아버지께로 향하리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제안에 대한 순종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자의 비유에서처럼 먼 나라에서 절제 없는 무분별한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과 비교되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연약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이들을 향해 본향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우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차례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인생의 짧은 순간을 영장해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대신 영원한 본향으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영생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그는 약속하셨고 관여하셨던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했으나 얻을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받았으나 다른 이유 없이 오직 의의의 옷을 입지 않아서 밖으로 쫓겨난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돌아서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거룩해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일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사망하는 종현의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선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그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경건치 못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에 이르는 길을 결정하십시오. **M**

심판의 날에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했으나 얻을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받았으나 다른 이유 없이 오직 의의
의 옷을 입지 않아서 밖으로
쫓겨난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돌아서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것들보다 물질적인 것들에 더욱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단지 부분적으로만 돌아오기 것입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실제 이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실제적인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일부분입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인간의 임무입니다! “돌아오기”의 단순한 교훈은 비월에 둘러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만함일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상상할 것입니다. 대부분 그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가장 큰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변경이라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죽음과 지옥, 그리고 하늘은 그들에게 장난감이 장난하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

니다. 회개에 대한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역시 회개의 실천을 거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임무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빛진 심정이지만, 그래도 역시 회개할 것에 대해서는 거절합니다. 회개가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래도 역시 회개해야 할 가장 명백한 이유들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가로막는 비열한 이유들이 그런 행동의 밑바닥에 놓여 있을 때, 자기의 죄를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은밀한 죄들은 죄인들로 하여금 감히 고백할 용기가 없게 하거나,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행동의 형태는 마음을 비굴하게 만들며 비겁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요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그의 부르심을 조종으로부

망글까지

수단에서 온 소식

'나나 쿨루 무나슬라 타 예수(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메신저)'

(수단 단기 평신도 선교사)

날씨

비가 오지 않는 우기라고 비추었더니(?) 한동안은 매일 저녁 비가 왔습니다. 한번은 트럭의 뒤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려 졸짜 젖고 말았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이곳에서 비가 오기 전에 '하늘'이라는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다가 모래가 걷히고 나면 굵은 메밀알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낫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뜨거운 태양이 다시 고개를 내밀곤 하지요. 워낙 비가 오지 않는 것이라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 한국에 비하면 정말 작은 양의 비였지만, 마치 홍수라도 난 듯이 곳곳에 물이 고이고 나일강변의 저지대는 물에 잠기기도 하였습니니다.

사역

한동안 소식이 두절되어 걱정을 많이 하셨죠? 아랍어 학교 강소를 맡게 되어있는 데 좋은 강소를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때마침 저가(정은희의 선교사, 권영일, 박수인, 추은희, 강기영) 살고 있던 곳의 계약기간도 만료가 되어 새로 이사간 집을 받은 아랍어 학교로 사용하고 받은 정은희와 강기영과 박수인, 강기영 단기평신도선교사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권영일 단기평신도선교사는 수단 젊은이들과 함께 유스 하우스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과 잡자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즐겁게 감당하는 모습이 너무도 귀합니다.

이사를 한다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더군요. 게다가 이번엔 생활공간과 학교가 함께 있다보니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곳저곳을 수리, 정리하느라 아주선한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사를 한 후에 아랍어 학교에 몇 명의 새로운 학생들이 등록을 하였습니니다. 앞으로는 계속 많은 학생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학습내용과 교사들의 열심

과 자질 있는 새 교사의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문화

수단의 대학교 졸업식, 상가집, 결혼식 등 여러 가지 풍습이 한국과 흡사하기도 하고 또 아주 색다르기도 합니다. 대학교 졸업식은 어느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친지와 가족들 친구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한껏 멋을 부린 졸업생들로 대단한 축제의 장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객이 한자리에 모여 유명인사들의 연설을 듣고, 졸업생 개개인에게 학위장을 나누어 줄 때는 환호를 지르며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졸업식이 보통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결혼식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신랑 신부가 앞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 사람들을 나와 축하를 해 주고, 축사를 하며 결혼 서약을 하고, 혼인증명서에 증인과 함께 서명을 하고...

모든 식이 마친 후에는 신부가 모든 객들 사이를 다니며 음식을 직접 나누어줍니다.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이 결혼도 긴 결혼식에서 신부는 연신 땀을 닦아 내면서도 그 자태를 흐트리지 않고 표정을 기쁨에 차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된 우리들도 이런 기쁨에 가득 찬 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상가 집 풍경은 부족하다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부족에서는 누군가가 죽으면 그 사람을 죽게 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하고... 이러한 살인이 계속 되곤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부족에서는 진짜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야만 한답니다. 그것도 비밀스러운 곳에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고는 진짜 남자가 되었다는 표시로 오른쪽 팔에 그리스인 사람의 수를 표시하며, 이 표시가 있어야만 결혼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전통

이라는, 문화라는 굴레로 이곳저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다양하고 다른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은 이런 전통의 틀을 깨고 너무도 순수하고 아름답게 믿을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니, 쿠리, 가와자, 마니!

이곳에서 저희들은 많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니(중국인), 쿠리(한국인), 가와자(외국인), 마니(돈).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바로 마니입니다. 카르통 시네를 가면 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을 보면 '마니, 마니'를 외치며 막 달려와서 옷을 잡고 따라옵니다. 한번은 동행하던 수단인 친구가 언제 이름을 마니로 바꾸었느냐면서 웃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그저 돈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라 아니라 아름답고 귀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인 '무나슬라'로 불려지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수단 시역과 더운 날씨 그리고 여러 일들이 겹쳐 누척된 피곤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치지 않고 남은 기간 충실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2차 외선부 의료선교의 날'

국내외국인선교부에서는 오는 '제2차 의료선교의 날' 행사를 갖는다. 서울시청 의약과 협찬으로 X선 촬영, 피검상 등 6개월간의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가 외국인에게 복음전도와 구제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지에 성탄 선물 보내기

선교위원회에서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각 선교지에 성탄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선교사에게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을 격려하며 위로하고자 성탄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성탄선물을 모집하고 있으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 기간: 10월 1일~10월 31일
2. 권장품종: ① 전장, 고추장, 라면 등의 식품류 ② 의류 및 신발류(사이즈는 선교위원회로 문의)
3. 물품 선택 및 구입의 어려움 경우 선교사가 필요한 물품을 직접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헌금
4. 변별 또는 파손될 위험이 있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품은 제한합니다.
3. 문의: 선교위원회

수요전도팀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다." 이말씀을 가지고 1년전부터 장남역을 전도드리고 정하고 우리 전도팀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먼저 황금어장과 같은 강소를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과 같은 바쁜 각박한 세상에도 남게 전도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이런 성령을 주셔서 일대일로 안정되고 정리된 마음으로 복음

을 전할 수 있으니 늘 감사드리고 결실의 열매 맺기를 바라며 소망 가운데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단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매혹하고 때론 핍박과 자유로 우리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증인이 되라"(행1:8). 이말씀에 의지해 증인의 길을 갈라지고 많은 영혼을 전도해 하늘나라를 확장하는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나는 약하지만 성령님의 도와 주시리라 믿고 사역을 한다. 그동안 전도받은 몇분이 결실하여 주님 영접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김남씨는 직장을 교회 옆으로 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서로 기도한 결과 교회 가까운 곳으로 취업도 되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나는 원하오니 늘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으시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반역 전도팀 윤효남 권사)

교도소에서 온 편지

집사님께

작열하는 뜨거운 태양 아래 소리 죽여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과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냉대받고 찬대받은 불쌍한 영혼들이 이곳에 많습니다. 부디 이 작은 영혼들을 전도하여 부디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과연 존재할까? 아니 무슨 하나님인지 존재해, 그것 다 엉터리일지, 말갈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 라고 생각하며 동료수용자가 성경책을 읽을 때 조용한 분위기에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할일이 그렇게도 없다고 구박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서 좋지 못한 일로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벌을 받게 되면 1개월간 면회 서신과 전화 등이 모두 불허됩니다. 그속에서 하루하루를 내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성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직접도 볼 기회가 싫어하던 성경을 나 자신도 모르게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 때 나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21절에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처럼 과연 저에게도 은혜가 주어질까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따며 무었인들 못하겠습니까. 이제는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아멘... 끝이었습니다.

정순에서 ○○○ 드림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 고 회 선 (청년2부)



벌써 결혼한 지 3년이 되어간다. 나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세가지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모든 일을 다 갈래내가 쉽지 않음을 절실히 느낀다. 하지만 그때 그때 나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 그리고 적절한 주의환경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늘 감사한다.

어머니께 딸 해연이를 맡겨놓고 나는 직장인으로 나선다. 나의 일터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생활보호자, 무의탁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방문해 목욕이나 이·미용 봉사, 반찬사비, 때론 의료봉사를 한다. 그러나 아직 나로서는 재정이나 인력 보조를 받지 못해 후원금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운영을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때로 1인 3-4역을 하면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다.

직장에서 맡은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무의탁노인이나 생활보호자를 찾아 목욕과 이·미용 봉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목욕과 이·미용 봉사는 보통 한달에 한번 꼴로 노인들의 가정을 찾아 이루어진다. 한달에 한번 정도는 헤드리저 하는 데 지난 3월 목욕때 머리를 깎아 드린 뒤 지난 7월까지 이·미용봉사를 헤드리저 못했다. 한달에 한번 자원봉사를 해 주던 미용실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을 계속 내지 못했던 것이다. 얼마 때가 제일 난감하다. 작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 충현교회 이·미용선교회에도 얘기해 보았지만 잘 연결되지 않아 몹시 좌절스러웠다. 이번에도 사방팔방으로 알아봤지만 마땅한 이·미용 봉사자를 구할 수 없었다.

할머니들의 머리는 점점 길어졌다. 사자 머리처럼 길어가는 머리카락을 보는 내 마음도 큰 죄나 지은 듯이 점점 무거워졌다. "머리 안 할라래?" 하시는 할

머니들에게 "알아보고 있... 아, 곧 잘라드릴게요" 하면서 속으로 기도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미용 기술을 배워야 할까요?'

물론 목욕자원봉사자들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남의 더러운 몸을 씻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으니 사랑하는 마음과 봉사의 정신만 있으면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미용은 그렇지 않다.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미용 전으로 기도하며 고민하던 7월 어느 날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 "봉사를 하고 싶는데요. 이·미용 기술이 있어요. 일주일 전에 전화주시면 하루 일을 쉬고 갈게요."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멋지고 광강하신 분이시. 우째 이런 일이...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몇 달에 걸쳐 공공대다가 숙제를 해낸 기분이었다. 지난 8월 목욕 봉사팀과 함께 할머니들을 찾았다. 할머니들의 집을 다니며 봉사에 드리면서 너무나 호감했다.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이발과 목욕을 하시고 좋아하시는 할머니들을 보니 내 마음도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린 것처럼 시원했다.

미용사에게 어떻게 우리를 알았느냐고 물었더니 은평구청에서 소개해 주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정말 놀라웠다. 은평구청에는 몇 년 전 방문해 우리가 하는 일을 소개하고 캠프를 마련한 인연밖에 없었던 것이다. 구청 관내에도 사회복지기관이 적지 않은데만...

늘 그랬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내 생각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허둥지둥할 때 그늘 보고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정말 못하겠습다"라고 고백할 때 "그래 이리와" 하며 품어주셨던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청년2부 면리의 정기총회

일시 : 2000년 10월 22일(오늘) 12시 20분

장소 : 재민로관 5층 집회실

☆ 만평

글·그림:김범현



언제나 힘이 되는 말씀

엄 해 연 (청년2부)



9월 24일 주일 새벽, 교회에 가서 봉사해야 할 생각이 마음에 무거웠다. 지난 주일, 새로 섬기기로 한 중등1부선생님들의 기대가 실린 듯한 환영이 부담스러웠다. 게다가 교회까지 오면 8시 30분부터나 늦지 말라는 당부도 잊칠 법력이었다.

꼭 설거지했던 '주간총회'에서는 요전 번 편집회의 빠진 탓에 그 때 결정된 사안의 내용과 요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데, 어쨌든 일인지 모두들 내 묻는 말은 듣지도 않고 답하는 것만이 '정말 자존심 상한다'였다.

이런 부담감과 얽매는 기분이 일주일 내내 사라지지 않다가 고교 3기 몇시간 전부터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묵히게 되더라는 것이 아닌가.

"중등1부의 일은 얼마나 힘들지, 왜 그렇게 부담은 주는지, 주간 총헌 봉사자를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 그만 두자..."

끝내는 흑흑 흐느껴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제가 내일 어쨌든 좋을가요?"

둘 중 어떤 심정을 포기할까요?

감금함으로 결혼 후 냉대하던 말씀묵상 책자를 펼쳤다.

"말씀에 주세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 1:10).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명료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과 뜻으로 다른 이들과 협력하여 그가 명하신 일을 하시는구나. 또 공동체의 본질은 지체들의 자기 합리화의 최종 수단일 뿐이라는 설명도 읽게 되었다.

그렇다. 내 자신을 버리고서 결과 맡겨진 일을 거대한 바위덩이로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한 부담감으로 동역자에게 소라없이 시비를 걸고 원망하면서 공동체에서 한 조각으로 떨어져 나을 생각에 갈등한 것이었다.

주일 하루, 중등1부에서나 '주간총회' 편집실에서나 함을 들었지만, 모두가 서로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어 맡겨진 일을 할 수 있었다. 모든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 했더라면 또 하나님을 의의했더라면 하는 후회도 있지만, 내 비합당과 어리석음을 교훈하고 고치자 마땅히 행할 바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매일 새벽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지체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나의 삶은 무끄러운바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았노라 하던 서도, 여전히 늘 부족한 미련한 죄인인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섬기도록 하신니 감사드립니다

이 소 영 (청년2부)

지난 한 해에도 교사로서 초등부 어린이들을, 구급부장, 영아성경공부 리더, 편집위원으로서 청년2부를 섬기며, 여름 단기선교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나는 만가지 일에 최선을 다 하였노라 말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진심으로 열의와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듯이 지체들을 섬기는데에 대한 열의가 있다. 때로는 시간에 쫓긴다고 힘들어 하였던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만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나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행한 일들도 있음을 고백한다. 일터에서는 처음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열의를 갖고 시작하였지만 나의 기도에 부응하지 않는 학생들에 실망했다는 핑계로 성의 없는 강의를 한 날들도 있었음을 고백한다. 다른 이들은 몰랐지만 주님 앞에서 나는 감을 수가 없음을 안다.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였지만 바쁘다는 핑계와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들에게 얼마나 소홀했었는지 생각한다. 주님의 은유함과 겸손함을 닮기 원하면서도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함을 고백한다.

설립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다. 부족한 나를 다

독거려주어 세워주며 함께 호흡하는 청년2부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와 하나님의 의미를 알았다. 가르치는 제자 몇 명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하여 캠퍼스 전도에도 힘쓰기 시작하였을 때, 단기선교를 통하여 이 땅 위의 많은 죽은 영혼들과 껍박 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이 땅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영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달란트를 사용하여 영혼 구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내가 갈망하는 순간에도, 나의 자신의 미련함으로 넘어질 때에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나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받아 주신다.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나를 고쳐주시고 재회주시고 선교의 비전을 주시며 섬기는 일들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써 일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구역탐방

종말의 때를 준비하자



6교구 운영 주공, 현대 구역
구역장: 이국표, 이재임 집사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녀들의 소풍기간이라 시간을 앞당겨서 10시에 예배를 시작했다. 시간을 앞당겼는데도 지체되지 않고 제 시간에 시작할 수 있었다. 그만큼 구역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마음을 입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말씀에 중점을 두고 종말에 대해 이야기가 오고갔다. 특히 본문 말씀에 나타난 현상 즉, 초대교회 당시에 어기 저기서 종말이라 부르짖는 자가 나타나 성도들을 현혹했던 현상이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우리 주변에 스쳐갔던 종말론을 검토해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이야기했다. 주변에 종말론적 언언에 빠진 사람들의 사례와 어떤 경로를 빠져서 되었는지를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구역 식구를 도한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자고 결의하고 최영희 권사님께서는 주간 성경 공부로 인해 신앙을 지켜 나가신다

며 주간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권장했다.

본 구역은 특별히 고난을 많이 겪었다. 이현숙 집사님의 자녀는 가와사키병으로 고생을 한 적이 있었고(지금은 완쾌됐음), 최정숙 집사님의 딸 보라는 뇌종양 수술을 두 번이나 했었으며 윤성민 집사님의 자녀 여영희는 크로씨 병으로 교회에서 두 몇번씩이나 쓰러지는데 고난이 많았지만 믿음으로 모두들 건강해졌다. 특히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현재 위암 말기로 투병중에 있는 김혜숙집사님 남편 건강이 썩다. 건강식사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라 모두 힘을 합쳐 건강식사의 구입확산을 위해 기도 중이다. 너무 많은 고난이 있었다고 기자가 위로하자 이국표 구역장님께서는 주님의 연단하심으로 생각한다.는 은혜로운 말을 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구역원이 하나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구역원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버리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 해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권영섭 기자)

아들이 딸아

영인, 영호에게



영인아, 영호아,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많지 않다. 그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것이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열심히 살고 교회 잘 다니면 부모로서 만족한다.

교회 다녀서 뭐 얻는 게 있느냐고 했지만 가장 큰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사랑을 얻는다. 중요한 건 이것이다.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끔 교회 간 기 때문에인지 심자가 목격 일을 하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다. 참으로 고맙고 반갑다. 언젠가는 너희들이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믿고 기도한다.

너희가 세상에 불만이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런 애미가 잘 못 키워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너희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야 하는데 애미가 말 주변이 없어서 대화도 많이 못 했구나. 미안하게 생각하고 참으로 좋은 가정 좋은 자식 좋은 부모가 되자. 교회 열심히 다녀라. 우리랑 애기 안 되는 것 있으면 전도사님들과 상담하고 아니면 생생 애미와 상담하고 그러라. 사랑한다.

김보덕 권장, 박성근 성도 (3교구)

미혹을 이기는 성도의 삶

이재임 (집사, 6교구)



미혹이라고 해서 꼭 재학적인 요소의 미혹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의 때에 닥쳐오는 여러 미혹들 중에 이단의 미혹이 나와 있습니다. 이단의 미혹은 의외로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문미화(가명인데 우리 교회 교인이었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상홍이라는 한국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성한 종교에 갔어요.

저는 무슨 특별한 사람만 가는 종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가니까 이상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이상한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드 온 것입니다. 처음엔 기독교에서 설문 조사자 나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무 의심이 문을 열고 반갑게 설문에 임했지요. 그랬더니 성경의 거역한 부분들을 인정하느냐는 몇 개의 질문을 하고는 나중에 질문에서는 성탄절이 빛가자 잘못된 것을 아는

나고 질문하고는 잘못된 성탄절을 생기는 교회는 잘못 됐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말했지만 계속 성탄절과 안식일만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안상홍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번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성경에서 이단들은 아예 상충을 하지 말라는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과연 초신자라면 혹시나 하며 넘어갈 뻔했습니다. 비록 그 이단자는 물리쳤지만 그 뒤로는 전도하기가 힘이 듭니다. 내가 전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단자로 오해할까봐 두려워해서지요. 이 얼마나 대단한 사단의 공작입니까? 전도를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작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이단의 유혹이 아주 많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말 할 것도 없고 통일교는 전도를 하면 통일교 소속 회사에서 전업을 시켜준다고 하니 우리 주위에는 미혹을 하는 이단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주 구역예배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미혹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장을 해야겠습니다. 말씀과 성경공부 그리고 구역예배로 우리를 단련하고 무장해서 미혹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청지기 세마니를 마치고 주의 잔에 동참케 하소서

오희승 (구역장, 3교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시편116:12-14)

내 신앙은 아직 서둘러 당당하지만 나대로의 고결감속에 주님과 나의 신성한 만남을 조율해 헤쳐나면서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내가 다가서며 호미작거리실지... 험하게 내 마음을 비우며 주님께 내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잔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서기사의 고백처럼 내게 당신의 미세한 음성이 있었기에 이러한 회개와 드거움으로 주님께 마친 내 회개의 기도는 저 예전 정발 행보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으로부터 십사만사천번의 대단한 은혜를 가져 받았습니다. 시시때때로 행운의 하루를 불운의 오늘로 돌변하는 우리네들의 모습속에서 상처받은 고뇌스러운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언어와 절제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용서하십시오. 이 순간에도 허기진채 굶주린 형제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유순하고 그릇된 기쁨을 깨는 조용한 아낙이 되기를 위하여 날마다 신성한 기도로 숙회하십시오. 마음이 가나니 그 되기를 그토록 갈망하며라도 심은 가나를 원치 않은 측은한 마음 부처이기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악세사리처럼 무성케 주님의 말씀

을 마음 복습하지만 막상에 사랑 실음은 패함입니다. 남의 잘지킨 잘못된 용납하면서 부끄러운 저의 덩이되는 유독 당신으로부터 용서받고 싶습니다. 이 부끄럽고 가소로운 자존심의 포로가 빛부신 겸허의 웃음 같이 임은 날에 주님의 연분을 맺어 주시렵니까.

주님! 당신의 달기비 풍요보다 가벼운이 필수품은 우리네들의 연약함으로 당신의 착한 청지기라 될 것을 수련히 침묵하였습니다. '내 사모했던 축복의 잔' 그 말씀으로 청이한 미소와 사랑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후련하게 새로운 나를 정돈하며 내게 주신 미소와 사랑으로 주님의 도구로 제가 쓰임받고자 원합니다. 내 나무의 향기로움처럼 넓은 연기의 그 말씀에 사랑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기쁨과 살아가게 해주는데 대한 축복의 잔을 주께 바칩니다. 내 내아 오심을 넘기면서 좋은 지는 종지기로서 내 나무의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충언교회를 위해 내가 기도하심을 알 나옵니다. 주의 특별한 사랑하심으로 내 가슴을 해집고 찾아주시 주님께 거듭거듭 감사와 찬미를 올립니다.

합심기도의 위력

김현아 (사랑부 교사)

몇 주 전 '사랑부' 봉사 2년째 인 내게 최대의 위기가 있었다. 어느 주일과는 달리 의 기소침해 하는 학생의 모습을 기억하고, 귀가 확인 전화를 하던 중 실종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집에 온 후 저녁 무렵에 나갔는데 3일째인 달이까지 연락이 안된다는 것이다. 여러 시간이 지난후이니 집근처를 벗어나 길을 잃고 낯선 곳에 있을테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도 어려울텐데, 배고픔과 쌀쌀해진 날씨에 받을 셔츠 확인으로 얼마나 추울까,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우선, 사랑부 담당 목사님께 연락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약속의 말씀을 찾았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에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싸는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18:8). 다음날 선생님 두분과 학생의 집을 심방하고 위로하며 기도했



다. "하나님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고, 주의 날에 그늘 아래 감추사 속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5일째 되는 날 아침 출근시간 때의 신림역에서 학생의 집근처 '마트' 직원이 여러날의 방황으로 배고픔과 피곤함으로 지쳐 있는 초

혜한 학생을 발견하고 집무근의 선봉역까지 데려다 준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교사기도의 시간에 학생 귀가의 기본소식을 나누면서, 목사님의 학생 실종소식을 듣게 된 후, 전 사랑부 교사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통해 기도를 요청하고 귀가소식을 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는데, 글썽 내가 찾은 시편말씀과 같은 말씀이잖는가.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고, 합심기도의 위력을 참으로 체험케 한 사건이었다. 또한 예배 때 기금 소음꾼이던 핸드폰이 신숙한 기도요청 도구가 된 것이 고마웠다.

에바다부 창립 12주년 기념을 돌아보면서

정영미 (에바다부 창립 전, 동아인)



'에바다부'에 들어간 지 어언 8년... 처음 학생 만 교사로 봉사했었는데, 그 때 맡았던 사랑하는 제자들은 어느덧 다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정이 들어 헤어지기 아쉬웠던 여러 목사님과 선생님, 회원들을 하나 둘 떠나보냈던 에바다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에바다부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청각 장애인 회원이 15명이고, 그 중에서도 농아인 자매(나를 포함해서)는 두 명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께 현재는 회원이 부족하지만 좀더 많은 동

역자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8년 후인 지금은 청년부터 장년까지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다. 작은 기도의 씨앗으로 인해 지금처럼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실 것을 확신한다. 과거에 비해 교회의 장애인 시설이 많이 좋아진 것도 기도의 결과라 생각된다. 교회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예배때의 수화통역이나 자막, OHP, 언어치료실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농아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봉사하시는 일반인들의 수고에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농아 부모의 자녀들에게 언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과 수화 통역해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헌신님과 부강 집사님, 장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작은 봉사와 헌신이 우리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됐다. 이들의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보다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 주님의 사랑이 충현교회에 그리고 에바다부에 언제나 가득 하길 바란다.

진리의 생

'사사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망각, 즉 어떤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인간에게 유익하거나 나쁜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다준다. 전자는 슬프거나 괴로운 일, 때로는 미움과 증오심 등, 속히 잊어야 할 기억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짐으로 해서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마땅히 잊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망각이 가져다주는 나쁜 결과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망각함으로써 불행에 겪게 되는 일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불행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망각 때문이지요. "예금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삿2:12).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실 때는 우선 모든 침략의 원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계게되는 하나님의 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사기 2장10절에 "그 세대 사람들(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은 사람)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일을 다 잊어버린 것이지요. 이럴 때의 망각이란 하나님이나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피차에 아주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읽으실 때, 두 번째로 기억할 일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해서 '각각 자기 소전에 혹은 대로 행하는' 열적 어두움이 반복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다음의 성경을 꼭 찾아보세요. 17:6, 21:25).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사기를 '순환'이라는 주제가 담겨있다고 말한답니다. 무슨 뜻이냐구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별죄"가 저질러지면, 즉시 주변 국가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시므로 '회개' 시키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별죄", '심판', '회개', '회개'... 이러한 악순환이 약 350년간 계속적으로 일곱 번씩이나 반복되는 시기라는 것이지요. 해도 너무 했지요?

사사기를 읽으실 때, 마지막으로 정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사들에 대한 미망입니다. 사사기가 '재판관들' (Judges)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타락한 이스라엘을 건지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주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재판관이 결정을 내리듯이 하나님의 손길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선택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김동희 목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친구의 편지

언뜻 스치다가 한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불렀다.

수리남에서 가끔 편지가 옵니다. 인터넷을 통한 E-Mail이지요. 이 편지를 통해 그곳에 있는 친구의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밝게 비추고 있더군요. 친구가 생각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메일을 확인해보니, 친구의 편지가 나보다 두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이번 주에 오렌ango 마파와 빠진 색론의 사역지에 다녀왔어. 마파와 빠진 색론으로 가는 길에 이 왜 이렇게 사랑스런문자..."로 시작되는 선교사역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발톱의 통증으로 인해 아픈 발을 이끌고 다녔을 친구를 생각합니다. 남아메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아의 기가 향기로온 화석류로 변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를 부탁하던 친구의 힘겨운 편지를 기억합니다. 화석류란 가지가 많은 흰 꽃의 상록 관목수이고 식물 전체가 향기로온 기름을 내므로 향수의 원료로 사용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감사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수리남에 있는 친구의 감사를 생각하며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봅니다. 인간이기에, 아니 그리스도인이기에 날마다 십자가 아래 자신을 봉헌시키기 위해 싸우느, 풍채를 향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가는 그 절주를 바라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명희 기자)

